

2024. 1. 3.(수) 조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4년 1월 2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 부서: 노동·공정·상생정책관
노동정책담당관
(서울노동권익센터)

노동정책담당관

조완석

02-2133-5410

노동권익팀장

박재형

02-2133-5417

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: 5쪽

관련 누리집

www.labors.or.kr

서울시, 한파 속 찾아가는 쉼터 4,700여명 찾아·2월까지 연장 운영

- 배달라이더·퀵서비스·대리운전기사 밀집 지역 30여 곳 순회한 ‘찾아가는 쉼터’ 4,700여명 대ňa
- 최근 연이은 강추위와 이동노동자들의 높은 호응에 2월 8일까지 연장 운영
- '23년 한 해 ‘휴(休)서울노동자쉼터’·‘찾아가는 쉼터’ 5만 3천여 명 이용
- 시, “지속적 노동환경 개선책 마련으로 이동노동자들 휴식권, 건강권 보호”

배달라이더 A씨는 다음 콜이 언제 올지 몰라 근처 찾아가는 쉼터에서 잠시 숨을 돌린다. A씨는 차와 간식 제공에 핫팩 등 방한용품도 얻고 이렇게 잠시나마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 만족스럽다. A씨는 12월에 쉼터 운영이 끝나면 계속 이어지는 한파에 어디서 쉬어야 하나 걱정했는데 2월까지 연장 운영한다는 소식에 한시름 놓았다.

- 서울시는 배달라이더, 퀵서비스, 대리운전 기사 등 이동노동자의 쉼 권리 보장을 위한 ‘찾아가는 이동노동자 쉼터’를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29일까지 운영한 결과 총 4,700여명이 방문했다고 밝혔다. 시는 올겨울 기습적인 한파와 이동노동자의 높은 호응을 반영해 오는 2월 8일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.

- ‘찾아가는 이동노동자 쉼터’는 소파와 테이블이 비치된 캠핑카 4대를 개조해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,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등 이동노동자들이 주로 일하는 지역 약 30여 곳을 순회 운영했다.
 - 쉼터는 캠핑카 내부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커피 등 다과와 함께 장갑, 핫팩 등 방한용품도 제공했다.
 - 2023년은 지난해보다 ▲캠핑카 운영 대수 증가(3대→4대) ▲찾아가는 지역 확대(20곳→30곳)하여 더 많은 이동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했다.

- 특히 2023년은 주요 이용자를 기존 배달라이더, 퀵서비스 기사에서 대리운전 기사까지 확대하고 업종별 주 활동 시간대와 지역을 반영해 맞춤형으로 쉼터를 운영했다. 그 결과 2022년 이용자 수 2,510명 대비 약 2배 증가한 4,700여명이 찾아가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이용했다.
 - 2023년 처음으로 대리운전 기사를 위해 심야(새벽)에 운영한 4호차는 일 평균 50명의 이동노동자가 찾으며 큰 호응을 얻었다.

※ 2023년 찾아가는 이동노동자 쉼터 이용자 수 총 4,717명
 : ▲1호차 (640명) ▲2호차 (703명) ▲3호차 (2,203명) ▲4호차 (1,171명)

〈찾아가는 이동노동자 쉼터 현황〉

구분	주요 이용자	장소	운영시간	'23년 이용자 수 (11.27~12.29)
1호차	배달라이더	배달 배송 업무 밀집 지역	9시~18시	640
2호차			12시~21시	703
3호차	퀵서비스	강남고속터미널 주차장	9시~18시	2,203
4호차	대리운전기사	광화문, 신논현역사거리 등	19시~익일 4시	1,171
합 계				4,717

※ 정확한 일정 및 장소는 서울노동권익센터 누리집(www.labors.or.kr)에서 확인 가능

- 시는 최근 한파가 지속되면서 쉼터에 대한 이용자의 호응도가 높고, 이용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찾아가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오는 2월 8일 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.
- ‘찾아가는 이동노동자 쉼터’ 운영은 서울노동권익센터가 맡는다. ’15년 개소한 ‘서울노동권익센터’는 노동자 상담, 권리구제, 노동교육을 비롯한 취약노동자 권익 보호·지원 기관으로 올해부터 ‘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’가 서울시로부터 업무를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다.
- 현재, 서울시는 찾아가는 이동노동자 쉼터 외에도 이동노동자의 안전하게 쉴 권리 보장을 위해 ▲서초 ▲북창 ▲합정 ▲상암 ▲녹번 등 5곳에 거점형(고정) 쉼터인 ‘휴(休)서울노동자쉼터’도 운영하고 있다.
 - ‘휴(休)이동노동자쉼터’는 건물 내부에 조성되어 휴게공간 내 컴퓨터, 안마 의자, 혈압측정기, 휴대폰 충전기 등을 비치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.
 - 특히, 대리운전 수요가 많은 서초쉼터와 합정쉼터는 새벽 6시까지 운영 하여 새벽까지 콜대기를 하거나 업무가 끝난 후 첫 대중교통을 기다리는 이동노동자들이 추위를 피해 쉴 수 있도록 했다.
 - ’16년 1호점인 서초쉼터 개소 후 현재까지 총 29만 9,315명의 이동노동자가 쉼터를 찾았고, ’23년은 ’22년 대비 10%(4,886명) 증가한 총 53,249명의 이동노동자가 쉼터를 이용했다.

※ 2023년 휴(休)서울노동자쉼터 이용자 수 총 53,249명
 : 서초(16,121명) ▲북창(10,474명) ▲합정(20,442명) ▲상암(3,154명) ▲녹번(3,058명)

〈휴(休)서울노동자쉼터 5개소〉

명칭	개소	주요 이용자	위 치	운영시간	'23년 이용자 수
서초쉼터	'16.3	대리기사	서초구 사평대로 354	월~토 13시~6시	16,121
북창쉼터	'17.6	퀵서비스기사	중구 세종대로4길 38	월~금 8시30분~20시	10,474
합정쉼터	'17.11	대리기사	마포구 양화로 73	월~금 9시~6시	20,442
상암쉼터	'18.5	방송미디어종사자	마포구 매봉산로 37	월~금 9시30분~18시	3,154
녹번쉼터	'19.7	셔틀버스기사	은평구 통일로 680	월~금 9시~18시	3,058
합 계					53,249

- 조완석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“이동노동자들은 취약노동자로서 쉼터가 서울시 이동노동자들의 쉼 권리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”며 “쉼터를 비롯한 다양한 노동환경 개선책을 마련해 이동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”고 말했다.

[붙임] 2023년 찾아가는 이동노동자 쉼터 사진



찾아가는 이동노동자쉼터 차량사진



찾아가는 이동노동자쉼터 차량사진



찾아가는 이동노동자쉼터 이용사진



찾아가는 이동노동자쉼터 이용사진